

법령 제·개정 동향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제2026-632호, 예고기간 : 2026.5.6.~ 6.15.]

[개정이유]

「항공안전법」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으로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관한 규정(제89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계기비행절차 및 항공정보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운영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군 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평가체계 마련(안 제256조의2 신설)

- 1) 「항공안전법」 제89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 2) 항공교통본부장이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며, 항공교통업무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표준화 이행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
- 3) 또한 표준화 관련 협의를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 구성 근거 신설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3. 공역관리 4. 항공교통흐름 관리 5. 항공정보·항공지도업무의 제공 및 품질관리 6.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 설정, 공고 및 품질관리 7.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8.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6-603호, 예고기간: 2026.5.21.-6.19.]

[개정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1호, 2026.1.20. 개정)되었으므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벤처투자 모태조합,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시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다. 시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라. 시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바. 인공지능기술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등(제16조의5)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제2026-746호, 2026. 5.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82호, 2026. 03. 17. 공포, 2026. 06. 18. 시행)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영상정보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 설〉	제17조의3(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조사등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 다만, 영상정보의 국외반출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따른다.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제조사등에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6346호, 2026. 5. 26., 일부개정, 시행 2026. 6. 3.]

[개정이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5호, 2025. 12. 2. 공포)됨에 따라, 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첨부서류 일부 면제(제11조의3제1항 및 제11조의6제1항)

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제품·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나 해당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변경·취소 신청서 및 첨부 서류(제11조의4제12항 및 제11조의6제14항 신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변경·취소 신청서에 관련 규제특례 확인서·임시허가서 사본과 해당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수급전용계좌를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마련(제36조의2 신설)

- 1) 손해배상을 받는 자가 본인 명의의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해당 계좌를 기재하고, 그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다른 손해보험금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내외 ITS 월간토픽

2026년 5월은 AI와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관리·주차·교통안전·재난대응·물류 분야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스마트 신호제어·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현장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와 표준화 경쟁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가속화된 한 달이었다.

국내 토픽

용인특례시, AI 포트홀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용인특례시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트홀 관제시스템을 총 300대 규모로 확대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마을버스 53대와 공무차량 147대에 관제 단말을 추가 설치해 기존 시내버스 중심으로 운영하던 관제시스템을 확대하면서다. 이를 통해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

확대 구축된 시스템은 차량에 초정밀측위정보(RTK)와 AI 영상관제장치를 탑재해 주행 중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식이다....운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3208건의 포트홀을 발견해 조치했다. 그 결과 도로 파손으로 인한 영조물 배상금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했고,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도 436건 줄어 약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일보, 2026.5.7.)

대구 노상주차장 빈자리 확인·결제 한번에

대구는 '노상주차장 스마트 전환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9개소 336면에 비대면 주차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차량번호인식(LPR) 기술과 CCTV를 활용한 관리체계 도입으로 부정 주차 예방과 주차 회전을 향상은 물론 24시간 무인 운영으로 심야 시간대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운전자가 출발 전부터 스마트폰 '탄력주차' 앱을 통해 목적지 주변 노상주차장의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와 ARS 등 다양한 비대면 결제 수단을 도입해 현금 위주 결제의 불편과 요금 정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신문, 2026.5.5.)

"자율주행차 봐도 놀라지 마세요"...광주 도심 전역 '테스트베드'

국도교통부와 광주시는 6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자율주행 실증도시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 광주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실증에 참여하는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릭스, 삼성화재 등 민간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 임월시 국도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발표를 통해 광주가 실증도시로 선정된 핵심 이유로 '인프라'를 꼽았다. 그는 "자율주행의 핵심은 학습인데, 광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갖춘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있다"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검증하기에 광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강조했다. (무등일보, 2026.5.6.)

꼬불꼬불 산복도로, 부산 자율주행 기술력 키울 시험대

부산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할 '자율주행 분야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7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부산을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다. 시는 부산 특유의 복합 도로 환경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급경사와 굴곡이 반복되는 산복도로, 향만 배후도로,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와 광안리 등은 그간 자율주행 기술 구현의 난제로 꼽혀왔다. 하지만 시는 이를 데이터 축적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고난도 도로 환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도출할 방침이다. 여기서 정제된 데이터는 민간 기업이 기술을 검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국제신문, 2026.5.11.)

진주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확대 구축

진주시가 최근 유동 인구나 교통량이 급증한 신진주 역세권 지역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진행 방향의 신호를 녹색등으로 우선 제어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1년 국토교통부 지자체 ITS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통 정체가 심한 6개 구간에 구축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 인구 유입과 교통량 급증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경남도민뉴스, 2026.5.12.)

8천300대 CCTV에 AI 드론까지... 안양시 폭우 감시망 강화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관리하는 8,300여 대의 시시티비(CCTV)를 통해 각종 자연재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상황 전파를 통해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법·교통·빅데이터 등이 연계된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 여름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드론 안전 안내방송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집중호우 시 하천에 접근하는 시민을 인공지능(AI)이 즉각 탐지하고 '하천 출입 금지' 계도 방송을 실시한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 않아도 드론이 자율 비행하며 실시간 경보 방송을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뉴스24, 2026.5.14.)

구미시, AI·공간 전략 담은 미래도시포럼 본격 시동

구미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학경제권 중심도시 구미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AI 연계 산업·경제 및 에너지, 도시·농촌 공간특화 전략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은 'AI'와 '공간'을 키워드로 총 7개 연구과제를 발굴했다. AI 분야에서는 ▲구미 피지컬AI 제조혁신 클러스터 구축 ▲구미 특화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 ▲AI전환 대응 구미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과제로 설정하여 산업·에너지·일자리 등 지역 핵심 기반에 시가 가져오는 변화를 분석,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공간 분야는 ▲첨단 물류기술 기반 구미형 스마트 물류 거점 조성 ▲도심 노후주거지 맞춤형 재생전략 ▲테크 기반 농촌 복합생태계 구축방안 ▲농산촌 자원 활용 체류·정착 기반 조성을 주제로 구미시 도시·농촌 공간의 재편 방안을 도출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연구를 본격 추진하며, 연구기간 중 과제별 전문가와 부서 간 간담회를 통해 과제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북구미신문, 2026.5.19.)

양주시, 시로 교통안전 혁신: 사고 예방 앞장선다

경기도 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AI 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한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고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양주시는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시스템을 제안해 최종 선정됐다. 양주시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이면도로 충돌 위험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으로, 이 시스템은 시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와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의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한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시가 실시간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즉시 경고 알람을 보내는 지능형 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해 돌발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브릿지경제, 2026.5.22.)

포천시,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 도입

포천시가 소방당국 소속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 신호체계를 도입한다. 경기 포천시는 화재·구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진행 방향의 녹색신호를 연장하거나 우선 부여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다. 긴급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이 줄어 현장 도착 시간이 단축되고 무리한 신호 위반 주행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데일리, 2026.5.7.)

광명시, 교통·에너지·환경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

경기 광명시가 도시 전역에 흩어진 교통·환경·에너지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체계 구축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형 탄소중립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스테이션'과 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행정 시스템과 신규 스마트서비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도시 운영 효율성과 탄소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데이터스테이션은 교통·환경·에너지·안전 분야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물에너지정보, 탄소중립포인트,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기존 행정 데이터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가상거래, AIoT 기반 침수·홍수 관제, 전기차 공유 서비스 등 미래형 스마트서비스 데이터도 함께 연동된다. (아주경제, 2026.5.13.)

TS, 자율차·보행자 소통 기술 공개...국제 기준 마련 속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5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중국 텐진에서 개최되는 제139차 GTB(국제 자동차 등화장치 전문가그룹)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자율주행 V2H 커뮤케이션 기술 연구 성과와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V2H(Vehicle to Human) 커뮤케이션 기술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주행 의사를 도로이용자에게 시각적인 수단으로 알리는 기술이며,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와 도로면에 투사된 이미지로 자율주행차의 주행의사를 표현하면 보행자가 자율주행차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5.20.)

안양시 K-드론배송 서비스 산림 쓰레기 역배송 나선다

안양시는 오는 5월 26일부터 11월 말까지 산림 쓰레기 역배송과 시민과 등산객을 위한 물품 전달 등을 사업 골자로 하는 산림 지역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24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인 K-드론배송 서비스는 국비 1억1,000만원, 시비 1억원 등 2억 1,000만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지역 드론 전문 기업인 (주)지아이에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시범 도입되는 산림 쓰레기 역(逆)배송 시스템은 사찰에 물품을 배달한 뒤, 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적재하고 하산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형 방식이다. 배송에는 적재 중량 40kg급 고중량 원치드론이 투입된다. (열린뉴스통신, 2026.5.24.)

해외 토픽

미 SAM 법안, 자율주행 대중교통 상용화 기반 마련

캘리포니아주 무소속 케빈 카일리 하원의원은 미국 하원에 공유 자율 이동성 법안(HR 869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CES 모빌리티 연합이 대중교통망 내 공유 자율 차량의 확장 가능한 도입을 저해해 왔다고 주장하는 연방 규제 및 자금 지원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TI, 2026.5.12.)

미 교통부, 오클라호마대 주도 자율화물운송 프로젝트에 1천만 달러 지원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가 농촌 및 원주민 지역의 물류 효율성과 교통안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자율화물운송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오클라호마대학교 공과대학은 최근 미국 교통부로부터 1천만 달러(약 1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참여 기관들의 매칭 펀드 1천만 달러가 추가돼 총 2천만 달러(약 28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 및 원주민 지역 물류 향상을 위한 자율 화물운송 시스템(ACCEL-RT, Autonomous Cargo Carriers for Enhanced Logistics in Rural and Tribal Areas)' 프로젝트로, 미국 교통부의 농촌 자율주행차 연구 프로그램(Rural Autonomous Vehicle, RAV)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7itsnews, 2026.5.9.)

미국 국토안보부,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발표...글로벌 표준 선점 나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5월 16일,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s, CV)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동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가 차량의 설계부터 개발, 배포, 유지보수 전 과정에 걸쳐 사이버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넥티드 차량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차량 해킹, 개인 정보 유출, 운행 시스템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자 DHS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DHS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의 채택,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등을 권고한다. 차량 내부 시스템뿐 아니라 외부 통신 시스템(V2X) 등 차량과 연결되는 모든 생태계 전반의 보안 강화를 강조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유스연합, 2026.5.27.)

출근길 정체 줄인다... 아부다비, AI 기반 '스마트 신호 제어' 도입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가 인공지능(AI)과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 고속도로 진입 차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했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를 줄이고, 연간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스마트시티 전문 인터넷 매체 SmartCitiesWorld에 따르면, 아부다비는 주요 간선도로인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거리에서 '적응형 램프 미터링'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티타임스, 2026.5.18.)

테슬라, 中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사용 승인

테슬라가 중국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사용을 허가받으면서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낸다. 테슬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중국 규제 당국 허가를 거쳐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공개했다. 감독형 FSD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보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운전자의 개입 하에 인공지능(AI)이 차량 제동, 가속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과 캐나다·멕시코·네덜란드·리투아니아·한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이 추가되며 총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전자신문, 2026.5.21.)

AI 카메라, 교통 단속에 어떤 변화 가져오는가

최근 교통 관리자들이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더욱 미묘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어 쿼리 플랫폼의 가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두바이의 최신 AI 집행 도입은 새로운 다중 범죄 탐지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2025년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두바이 경찰은 KTC 인터내셔널 다중 센서 장치와 과속, 산만한 운전, 갑작스러운 차선 우회, 꼬리잡기, 불법 창문 틈팅, 과도한 차량 소음 등 6가지 위반 유형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Kapsch TrafficCom의 HoTCap 시스템은 2026년 3월 Intertraffic Amsterdam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HoTCap(Holistic Toll Capture)은 차량의 전체 형태와 색상 특성에서 고유한 지문을 만들어 번호판 인식을 강화한다. 이 지문은 여러 카메라의 번호판 인식(부분적일 수 있음)과 결합하여 각 차량에 대해 완전한 견고한 신원을 구축할 수 있다. (tti, 2026.5.22.)

허난성: AI가 현대 교통의 새로운 그림

최근 2026년 허난성 교통 과학기술 혁신 회의가 정저우에서 개최되었으며, 동시에 "허난성 '인공지능+교통' 혁신 적용 실행 계획"(이하 "계획")이 발표되었다. 한 기자는 이 계획이 인공지능(AI)과 운송 부문의 심층 통합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대규모 적용의 경로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허난 교통 산업의 새로운 생산력 육성 및 확장에 강력한 기술 동력을 불어넣으며 고품질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전했다. 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허난은 2028년까지 데이터, 모델, 컴퓨팅 파워를 아우르는 산업 디지털 인텔리전스 기반을 완성하여 20개의 벤치마크 운송 시나리오를 만들 계획이다. (7itsnews, 2026.5.25.)

中, 'AI 기반 스마트카' 표준 선정 나선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장비1사(司)가 26일 '2026년 자동차 표준화 업무 요점'을 발표했다. 자동차 표준 체계를 더욱 완벽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국제 표준 협력 심화에 그 목적이 있다. 26일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요점'은 표준이 앞서서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며 ▷품질 안전 표준 향상 ▷녹색·저탄소 표준 갱신 ▷신형 분야 표준 선도 ▷미래 기술 표준 사전 연구 등 네 가지 특별 행동을 제시했다. "스마트커넥티드카(ICV)는 이미 비교적 성숙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관련 표준 체계를 더욱 완벽하는 것은 산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통신, 2026.5.28.)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5.31.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양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상남도 양산시	200,000,000	2026. 06. 04.
일반용역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 수요 발굴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25,000,000	2026. 06. 08.
일반용역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 유지보수	한국도로교통공단	94,149,000	2026. 06. 09.
일반용역	도로교통법 분법 연구	한국도로교통공단	90,000,000	2026. 06. 10.
일반용역	2026년 국토교통 웹사이트 공공엽 품질진단 용역	국토교통부	121,222,000	2026. 06. 10.
일반용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	부산광역시	700,000,000	2026. 06. 10.
물품	서울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1,493,228,400	2026. 06. 11.
일반용역	2026년 검단구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인천광역시 서구	171,897,000	2026. 06. 11.
일반용역	서울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190,000,000	2026. 06. 11.
일반용역	도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TAAS) 고도화	한국도로교통공단	640,000,000	2026. 06. 12.
일반용역	충주 관광 특화 자율주행 셔틀 실증 서비스 운영 용역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352,000,000	2026. 06. 12.
일반용역	안동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협상)	경상북도 안동시	285,000,000	2026. 06. 17.
일반용역	2026년 울산항 CCTV 및 항만출입관리 유지관리 용역	울산항만공사	1,139,644,000	2026. 07. 01.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용역	함양울산선(함양-합천) ITS구축 책임감리용역	한국도로공사 본사	1,745,383,000	2026. 06. 11.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 수요 발굴 연구용역

일반사항

사업명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 수요 발굴 연구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4.까지
 사업예산 : 2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해사분야 AI·디지털 전환(AI·DX), 자율운항선박 개발, 저궤도위성 통신 상용화 및 해상풍력단지,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확대 추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 구축('21.1~) 이후 바다내비 이용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운용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미흡 (△단말기 설치 선박 약 1.1만척, △모바일앱 등록선박 약 5만척 ('26.2.기준))
 특히,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등 인명안전과 해양환경 피해가 직결되는 선박 단말기 전원 차단 행위 모니터링 체계 및 제재 규정 신설 시급

※ 「'26년 우리부 장·차관 핵심과제 선정」 : 권제누비아호 좌초 사고('25.11) 계기, 인적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 예방 필요성 증대 → 장·차관 주도 사고 예방시스템 고도화

주요 과업 내용

(실태조사) 현행 법령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교통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국내·외 해양교통환경 변화 분석 및 유사 제도운영 실태조사
 (개정수요 발굴)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주요 개정사항 검토, 추가개정 수요 발굴 및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신규서비스 발굴) 해양사고 예방 실효성 제고, 선원복지증진을 위한 바다내비 서비스 기능 개선 정책 제언 및 신규서비스 발굴
 (하위법령(안) 마련) 바다내비 서비스 제공주체 확대 등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 법령(안) 마련 (* 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24.12, 의안번호2207180))

문의처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051-773-6143)

도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TAAS) 고도화

일반사항

- 사업명 : 도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TAAS)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사업예산 : 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빅데이터·AI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사고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분석 환경 마련 가능
-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활용 수준과 기대치의 지속적 상승으로 최신 UI/UX 트렌드 반영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필요
-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API 개발로 운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 지원 필요

과업 범위

- AI기반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 「통계 기반 인사이트 분석 서비스」, 「XAI 기반 GIS 인사이트 분석 서비스」 구축
 - 교통사고 집중 대상 지점 도출, 개선사업 등에 따른 효과분석 수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구축
 - 데이터 시각화 및 사용자 경험(UX) 고도화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TAAS 및 개방체계 UI/UX 디자인 리뉴얼
 - 통계분석 및 GIS분석 서비스에 대한 온보딩 가이드 제공 및 주요 용어에 대하여 툴팁(Tooltip) 기반의 안내 제공 등
-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확장
 - 외부데이터 융합 위험요인 분석예측, 이용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계절성 재난형 교통사고 특화 서비스 구축
 -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API 개발
 - 어린이 TAAS 서비스 디자인 개선 및 통계-GIS 메뉴 추가
 - 내부 플랫폼 기능 일부 이관 및 TAAS 활용사례 페이지 추가
-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자동화 및 효율화 등

문의처

한국도로교통공단 A디지털본부 A데이터전략처 / 박해수 과장 033-749-5266 / phsoo@koroad.or.kr

충주 관광 특화 자율주행 셔틀 실증 서비스 운영 용역

일반사항

- 사업명 : 충주 관광 특화 자율주행 셔틀 실증 서비스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0일 이내
- 사업예산 : 35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필요성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단계 진입, 관광 및 생활교통 적용 확대 요구에 따라, 충주시 탄금공원 내 관광 특화형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및 관광 특화용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도모

과업 범위

- 관광 특화 자율주행 순환 셔틀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 관광 구역 연계 자율주행 시스템 실증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관련 모든 업무 및 제반 사항 수행
- 자율주행 서비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고도화 방안 및 신규 과제 도출

문의처

(재)충북테크노파크 미래모빌리티센터 / 043-270-2714

ITSK
NEWS

방산-ITS 융합 통한 해외시장 진출 논의 방산-ITS분야 수출·수주협력 간담회 참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5월 27일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방산-ITS 분야 수출·수주 협력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내 ITS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방산 분야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관계기관과 국내 방산-ITS 기업들이 참석하였다. 최근 AI, V2X 통신, 자율주행, 통합관제, 디지털 트윈 등 ITS 분야의 첨단기술은 민간 교통서비스를 넘어 국방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군용 이동체 운용, 유무인 복합체계, 통합 지휘통제, 안티드론 분야에서 방산과 ITS 산업 간 융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TS협회는 간담회에서 ITS 산업이 보유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방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결합될 경우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출모델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ITS 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 가능성과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 수요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기술매칭, 수출 패키지화,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재직자 직무전환 역량강화 교육 성과 인정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우수기관 선정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5년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종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인공지능(AI)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자의 직무전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실적, 훈련성과, 기업지원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ITS협회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지능형 교통체계(ITS), 자율주행, AI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급격한 산업 변화에 직면한 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전환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ITS협회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사와 교육생, 그리고 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에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ITS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TS 국제협력센터, AI 교통관리 주제로 6월 글로벌 ITS 웨비나 개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오는 6월 17일, 아태지역 ITS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네트워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6월 글로벌 ITS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ITS 분야 전문 미디어 채널인 'GITS News'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아태지역 유관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태지역의 글로벌 ITS 유관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특히 '사례 기반 AI 교통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AI 기반 교통관리 및 데이터 활용 시스템에 대한 주요 동향과 적용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계자는 협회 홈페이지 및 별도 안내 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행사 안내문 내 등록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